

상급종합병원 임상간호사의 유머감과 낙관성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경숙, 장인실*
울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Effects of sense of humor and optimism on the nursing
performance of the clinical nurse in the advanced general hospital

Kyoung-Sook Lee, Insil Ja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University of Ulsan

요 약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유머감각, 낙관성, 간호업무성과의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S 특별시 3개 상급 종합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 183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4월 8일까지 하였다. 유머감각, 낙관성, 간호업무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 특성 중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수준, 교대근무, 경력이었고, 유머감각과 낙관성이 영향을 미쳤다. 이 3개 변수의 설명력은 38.6%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머감각과 낙관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결과가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간호사에게 유머감각과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간호사, 유머감각, 낙관성, 간호업무성과, 상급종합병원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explore the correlation among sense of humor, optimism, and nursing performance and identify factors related nursing performance among nurses. A survey was conducted for April 2018 with self-report questionnaire. Participants were 181 registered nurses working in three tertiary hospitals. Sense of humor was positively correlated optimism, and nursing performance. Factors affecting nursing performance included educational background, work shift, clinical career. Nursing performance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nse of humor and optimism. And work shift, sense of humor and optimism accounted for 38.6% of the variance in nursing performance. Therefore, quality management for developing nursing professionalism support for improving nursing performance and sense of humor and optimism. Future research will be needed to clarify the effects of the sense of humor and optimism promotion program on nursing performance.

Key Words : Nurses, sense of humor, optimism, nursing performance, advanced general hospital

*Corresponding Author : Insil Jang (isjang@ulsan.ac.kr)

Received April 10, 2019
Accepted July 20, 2019

Revised May 12, 2019
Published July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상급의료기관은 대형화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으로 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1]. 병원에서 간호부서는 전체 인력의 43.7%로, 병원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질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2,3]. 환자와 24시간 접촉하는 임상간호사는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켜야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4].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사가 환자의 치유와 안녕을 위하여 간호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5], 병원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6].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성원 개인과 조직 및 환경적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유머는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웃음을 일으키는 복잡한 정신적 자극이다[7]. 간호에서 유머는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가 긍정적인 대처에 영향을 주었다[8]. 연구에서 간호사의 유머감각 정도와 간호업무성과간의 상관관계가 있었고[9], 간호사의 의사소통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와 학습촉진, 사기 진작 등에 영향을 주었다[7, 10]. 즉 간호사의 유머감각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머 감각에 관한 연구는 입원환자나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11],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업무성과와 연결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었다[9].

낙관성은 일반화된 긍정적인 기대이며, 미래에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12].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높은 수준의 안녕감을 느끼며[12], 간호사들이 낙관성이 높을 경우 직무 스트레스 감소, 안녕감 향상의 매개요인이라는[10] 연구결과가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간호업무 성과와 관련이 있는 변수로 유머감각, 직무스트레스, 리더십, 셀프리더십, 직무만족도, 조직몰입수준, 동기부여, 임파워먼트, 자존감, 간호역량 등이 [11, 12, 15, 16] 있었다. 따라서 간호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측면의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긍정심리학이 대두 되면서 임상간호사에게 유머감각, 낙관성이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간호업무성과, 유머감각, 낙관성의 변인을 포함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업무성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유머감각, 낙관성, 간호업무성과와의 상관관계를 탐색하고,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유머감각, 낙관적, 간호업무성과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유머감각, 낙관적, 간호업무성과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 낙관성, 간호업무성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유머감각, 낙관성, 간호업무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3개의 상급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유머감각, 낙관성, 간호업무성과를 확인하고,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서울시 소재의 3개의 상급병원에서, 만 1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를 편의표출 하였다. 연구자가 연구 목적, 익명성, 비밀보장에 대해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선정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간 효과크기 0.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예측변수 8개를 적용하여 160명으로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의 표본수 181명은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유머감각

Svebak[14]이 개발한 SHQ(Sense of Humor Questionnaire)를 Hwang[15]이 사용한 것을 Son[16]이 일부 수정·보완한

도구로서, 3 개의 하위영역은 정서 표현성, 메타메시지 감수성, 유머 선호도가 있다. 각 하위영역은 7문항씩이며, 모두 21문항으로 점수의 범위는 21~84점이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의 범위에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머감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on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4$ 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 이었다

2.3.2 낙관성

본 연구에서 낙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eier, Carver(1985)[12]가 사용한 삶의 지향성 검사(Life Orientation Test: LOT)를 Scheier, Carver 및 Bridges [17]가 수정한 척도(Life Orientation Test: LOT-R)를 Shin[1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긍정적인 삶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에 관한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3개의 부정적인 문항, 4개의 허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형 척도로 점수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hin[1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73$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4$ 이었다.

2.3.3 간호업무성과

간호업무성과는 Ko 등[4]이 개발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로서, 간호업무 수행능력(7문항), 간호업무 수행태도(4 문항), 간호업무 수준향상(3문항), 간호과정 적용(5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19문항 이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의 범위에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8이었고, 간호업무수행능력 .88, 간호업무수행태도 .81, 간호업무수준향상 .76, 간호과정적용 .68 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전체의 Cronbach's α 값은 .93였고, 간호업무 수행능력 .87, 간호업무 수행태도 .85, 간호업무 수준향상 .74, 간호과정 적용 .87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병원 간호부의 동의 이후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8년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연구대상자는 연구에 대한 동의를서를 작성하였다. 전체 설문 탈락률을 고려하여 192부를 배포하여 총 185부가 수거되었으나, 설문조사

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4부를 제외한 181부(97.8%)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간호사의 유머감각, 낙관성, 간호업무성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간호사의 유머감각, 낙관성, 간호업무성과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간호사의 유머감각, 낙관성, 간호업무성과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간호업무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유머감각, 낙관성, 학력, 교대근무, 임상경력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평균 32.06 ± 5.51 세였으며, 미혼이 98명(64.0%)로 나타났다. 학력은 학사학위가 113명(62.4%),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124명(68.5%)로 가장 많았다. 근무형태는 교대근무가 125명(69.1%)로 가장 많았고, 근무 부서에서는 외과계 병동 136명(75.1%), 내과계 병동 31명(17.1%), 외래 및 특수부서 14명(7.7%)로 나타났다. 임상경력은 평균 8.81 ± 5.70 년이었고 종교는 없는 경우가 104명(57.5%)로 나타났다(Table 1 참고).

3.2 대상자의 유머감각, 낙관성, 간호업무성과

대상자가 지각한 유머감각 평균은 2.53 ± 0.26 이며, 하위영역별로 메타메시지 감수성 2.77 ± 0.28 점으로 가장 높았고, 유머선호도 2.48 ± 0.14 정서표현성 2.35 ± 0.18 점 수 이었다. 낙관성 평균은 2.99 ± 0.27 이며, 하위영역별로 부정적 기대가 3.06 ± 0.35 , 긍정적 기대 2.91 ± 0.30 로 나타났다. 간호업무성과는 평균 3.15 ± 0.29 이며, 하위영역별로 수행능력 3.18 ± 0.31 , 간호과정적용 3.18 ± 0.35 점, 업무수준향상 3.13 ± 0.34 , 수행태도 3.07 ± 0.41 순 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Age(yr)	20~29	67(37.0)	32.06±5.51
	30~39	93(51.4)	
	≥40	21(11.6)	
Gender	Male	0(0.0)	
	Female	181(100.0)	
Marital status	Single	98(64.0)	
	Married	83(36.0)	
Educational background	Diploma	10(5.5)	
	Bachelor	113(62.4)	
	≥ Master	58(32.1)	
Position	Staff RN*	124(68.5)	
	CN* UM	10(5.6)	
	APN* Coordinator	47(25.9)	
Work shift	Yes	125(69.1)	
	No	56(30.9)	
Work area	Surgical unit	136(75.1)	
	Medical unit	31(17.1)	
	Other	14(7.7)	
Clinical carrier (yr)	1~3	38(21.0)	8.81±5.70
	3~5	17(9.4)	
	5~10	38(21.0)	
	≥10	88(48.6)	
Religion	Yes	77(42.5)	
	No	104(57.5)	

*RN=Registered nurse, CN=Charge nurse, UM=Unit Manager, APN=Advanced practice nurse

Table 2. Mean Scores for sense of humor, optimism and nursing performance

(N=181)

Variables	Range	M±SD	Min	Max
Sense of humor		2.53±0.26	1.53	3.14
Emotional Expressiveness	1~4	2.35±0.18	1.57	2.71
Metamessage Sensitivity		2.77±0.28	1.42	3.57
Liking of humor		2.48±0.14	1.14	3.28
Optimism		2.99±0.27	2.16	3.83
Expectation of positiveness	1~4	2.91±0.30	2.00	4.00
Expectation of negativness		3.06±0.35	2.00	3.66
Nursing performance		3.15±0.29	2.42	4.00
Performance	1~4	3.18±0.31	2.57	4.00
Attitude		3.07±0.41	1.75	4.00
Improvement of performance		3.13±0.34	2.00	4.00
Nursing process application		3.18±0.35	2.40	4.00

1. Total mean(±SD) = 53.23±5.61

2. Total mean(±SD) = 17.95±1.64

3. Total mean(±SD) = 59.90±5.57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 낙관성, 간호업무성과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머감각, 낙관성, 간호업무성과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유머감각과 낙관성은 나이, 결혼상태, 학력, 지위, 교대근무, 근무지, 임상경력,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업무성과는 학력($F=3.51, p<.005$), 교대근무($t=-1.511, p=.134$), 임상경력($F=4.74, p<.0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전문학사나 석사학위이상인 경우에 학사

학위에 비하여 간호업무성과가 높았으며, 임상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경우에 1~3년 사이의 간호사보다 업무성과가 높았다. 연령($F=1.56, p=.212$), 결혼상태($t=-1.511, p=.134$), 직위($F=1.15, p=.318$), 종교($F=.018, p=.96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참고).

Table 3. Differences in sense of humor, optimism and nursing perform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1)

Categories	sense of humor		optimism		nursing performanc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Age(yr)						
20~29 ^a	53.64±5.87	.351	15.90±1.31		59.84±5.17	1.56
30~39 ^b	52.95±4.51	(.704)	16.23±1.04	1.49	61.85±6.34	(.212)
≥40 ^c	52.92±5.66		16.20±1.02	(.227)	59.46±5.67	
Marital status						
Single	52.60±5.76	-1.647	16.12±1.55	.625	59.32±5.40	-1.511
Married	53.97±5.38	(.099)	16.03±1.75	(.086)	60.57±5.71	(.134)
Educational background						
Diploma ^a	54.50±5.52	1.96	16.30±0.82	.183	61.50±5.85	3.51
Bachelor ^b	52.59±5.98	(.142)	16.07±1.12	(.833)	59.06±5.25	(.032)
≥Master ^c	54.25±4.74		16.06±1.29		61.26±5.89	a,c>b
Position						
Staff RN ^a	52.89±6.08	1.23	16.12±1.10	.338	59.48±5.61	1.15
CN ^b	55.60±4.52	(.296)	15.90±0.99	(.714)	60.30±6.00	(.318)
APN ^c	53.61±4.33		16.00±1.35		60.91±5.33	
Work shift						
Yes	52.88±6.02	-1.153	16.08±1.55	.075	59.36±5.55	-2.03
No	53.92±4.51	(.250)	16.07±1.82	(.940)	61.18±5.49	(<.043)
Work area						
Medical unit	53.10±5.70	.390	16.13±1.22	.525	59.87±5.74	.094
Surgical unit	53.22±5.48	(.678)	15.90±0.94	(.592)	59.74±4.69	(.910)
Other	54.50±5.61		16.00±1.03		60.50±5.57	
Clinical career(yr)						
1~3 ^a	52.61±6.62	.687	16.16±1.29	.300	55.44±5.45	4.74
3~5 ^b	51.80±4.17	(.561)	16.10±1.02	(.825)	59.65±4.12	(.003)
5~10 ^c	53.69±5.92		16.16±0.96		60.46±5.86	b,c,d>a
≥10 ^d	53.48±5.53		15.98±1.31		60.58±5.57	
Religion						
Yes	53.07±5.38	-1.153	16.11±1.58	.336	59.90±5.40	.018
No	53.34±5.80	(.250)	16.05±1.69	(.986)	59.89±5.72	(.986)

Table 4. Correlations of Sense of humor, Optimism and Nursing performance (N=181)

Variables	Sense of humor	Optimism	Nursing performance
	r (p)	r (p)	r (p)
Sense of humor	1		
Optimism	.142(.056)	1	
Nursing performance	.460(<.001)	.475(<.001)	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performance (N=181)

Variable	B	β(p)	t	p
Constnat	11.896		2.648	<.009
Optimism	1.419	.416(<.001)	7.010	<.001
Sense of humor	.387	.390(<.001)	6.547	<.001
Work shift	1.471	.122(.040)	2.070	<.05

F=38.53, p<.001, R²=.396, Adj-R²=.386

3.4 대상자의 유머감각, 낙관성, 간호업무성공과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간호업무성공과는 유머감각과 (r=.460, p=.056), 낙관성(r=.32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유머감각과 낙관성(r=.142, p=.056)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4 참고).

3.5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공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학력, 교대근무, 임상경력과 유머감각, 낙관성을 종속변수로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참고).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8.53, p<.001).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공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낙

관성, 유머감각, 교대근무였으며, 이를 통해 간호업무성
과의 38.6%를 설명하였다.

4. 논의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교육수준, 교대근무, 임상
경력에 따라 간호업무성과에 차이가 있었다. 즉 전문학과
와 석사이상의 학력의 간호사가 학사학위소지자보다 간
호업무성과를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
학사가 10명 밖에 포함되지 않아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사학위소지자 보다 석사이상
의 학위소지자가 간호업무성과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원이상 졸업간호사가 일반학사나 전
문학사보다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19].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간호사
가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보다 간호업무성과를 높게 지
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
과[20]와는 다른 결과였다. 이는 연구대상자가 달랐기 때
문일 것으로 사료되며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 임상경력에 따라 간호업무성과가 차이가 있었는데,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1~3년 사이의 간
호사보다 업무성과가 높았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았다는
결과[20, 21, 24]와 일치한다. 이로써 간호업무성과를 향
상시키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인 학업이수를 위한
방안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년 이상이면 간호
업무성과가 높아지므로 간호사들이 업무성과 향상을 위
하여 임상경력을 3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조직적 차원의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유머감각의 정도는 84점 만점에 평
균 53.23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약 63점으로
중간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메타메시지 감수
성, 유머선호도, 정서표현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손
[15]의 연구에서 유머감각정도가 54.33점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하위영역별로는 정서표
현성, 유머선호도, 메타메시지 감수성의 순서로 달랐으나
각 하위영역의 평균점수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므로 비슷
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낙관성의 정도는 24점
만점에 평균 17.95점으로 100점으로 환산하면 74.8점으
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로 부정적 낙관성이 긍정적 낙관
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구는 달랐지만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65점[22,

24]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업무성과는
76점 만점에 평균 59.90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
면 78.8점, 하위영역별로 간호과정적용이 76점, 수행능
력63.6점, 업무수준향상 62.6점, 수행태도가 61.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업무성과 72.8점보다는 높은 수준이었
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상급병원간호사들이었으
므로 업무성과를 높게 지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업무성과는 유머감각과 낙관성과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21, 23].

본 연구에서 낙관성, 유머, 교대근무가 간호업무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낙관성이 간호업
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이었는데 이는 연
구결과는 긍정심리자본이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25, 26]와 일치하였다.

유머는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이
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지지하고 있다 [21, 23]. 그러므로 간호업무성과향상을
위하여 간호사의 유머감각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교대근무는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
인이었다. 즉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간호사가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에 비해 간호업무성과가 높았다. 이는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대근무유무가 간호업무성과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와[18,19, 21-23]는 다른
결과였다. 그러므로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간호사의 유머감각이 높을수록 간
호업무성과가 좋은 것으로 유머감각을 향상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27, 28], 낙관성과 교대근무 유무
도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낙관성을 향상시키
고 교대근무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
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임상간호사에게 간호업무성과
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머감각과 낙관성을 통해 확인했다
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임상간호사의 간호
업무성과 향상하기 위해 유머감각과 낙관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리라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유머감각과 낙
관성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

도되었다. 간호사의 유머감각과 낙관성이 간호업무성과와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낙관성, 유머감각, 교대근무가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으로 38.6%를 설명하였다. 간호사에게 낙관성을 가지도록 하고 유머감각을 향상시키는 것이 간호업무향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에게 낙관성이나 유머감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간호업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연구를 추후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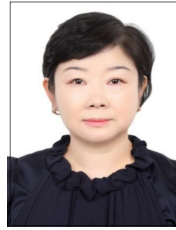
- [1] A. N. Park, K. H. Chung & W. G. Kim. (2016).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1), 1-10. <https://doi.org/10.11111/jkana.2016.22.1.1>
- [2] G. M. Noh & M. S. Yoo. (2016). Effects of workplace spiritualit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n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3), 251-259. <https://doi.org/10.11111/jkana.2016.22.3.251>
- [3] E. H. Oh & B. Y. Chung. (2011). The effect of empowerment on nursing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4), 391-401. <https://doi.org/10.11111/jkana.2011.17.4.391>
- [4] Y. K. Ko, T. W. Lee & J. Y. Lim. (2007). Development of a performance measurement scale for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3), 286-294.
- [5] N. S. Ha & J. Choi. (2010). An analysis of nursing competency affecting on job satisfaction and nursing performance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3), 286-294. <https://doi.org/10.11111/jkana.2010.16.3.286>
- [6] Y. M. Cho & M. S. Choi. (2016). Effect of clinical nurses' basic psychological need, self-leadership and job stress on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8), 343-353. <https://doi.org/10.11111/jkana.2016.22.3.251>
- [7] V. M. Robinson. (1977). *Humor and the health profession*. New Jersey : Slack.
- [8] P. Åstedt-Kurki, A. Isola, T. Tammentie & U. Kervinen. (2001). Importance of humour to client-nurse relationships and clients'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7(2), 119-125.
- [9] S. Min, Y. J. Jung & H. S. Kim. (2004). Correlation between a sense of humor in nurses and their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17(4), 1427-1444.
- [10] H. B. Kaplan, & Boyd, I. H. (1965). The social functions of humor on an open psychiatric ward. *The Psychiatric Quarterly*, 39(1-4), 502-515.
- [11] M. M. Tse, A. P. Lo, T. L. Cheng, E. K. Chan, A. H. Chan & H. S. Chung. (2010). Humor therapy: relieving chronic pain and enhancing happiness for older adults. *Journal of aging research*, 2010.
- [12] M. F. Scheier & C. S. Carver.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3), 219.
- [13] F.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2007).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14] S. Svebak. (1974). Revised questionnaire on the sense of humor.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15(1), 328-331.
- [15] M. S. Hwang.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se of humor and ways of stress cop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Chunbuk
- [16] H. S. Son.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s' sense of humor and empower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17] M. F. Scheier, C. S. Carver & M. W. Bridges.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257-1264.
- [18] H. S. Shin. (2005).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coping in the relation of optimism and pessimism to psychological adjustment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3), 165-192.
- [19] S. I. Im, J. Park & H. S. Kim. (2012). The Effects of Nurses Communication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1(3), 274-282.
- [20] M. S. Im, K. H. Park, E. K. Choi, W. S. Kim & E. J. Choi.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Verbal Abuse, Psychosocial Stress, and Nursing Performance in Nurs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8), 586-596. <https://doi.org/10.5392/JKCA.2017.17.08.586>
- [21] J. Y. Choi, I. Y. Hwang & Y. M. Park. (2012). Relationship among sense of humor, self-esteem, and performance in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1(1), 10-17. <http://dx.doi.org/10.5807/kjohn.2012.21.1.10>
- [22] S. K. Sohn, M. S. Kim, Y. S. Lee, H. K. Park & M. Y. Roh. (2014).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tress on optim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 63-71. <http://dx.doi.org/10.14370/jewnr.2014.20.1.63>
- [23] S. I. Lee & E. J. Lee. (2016). Effect of nursing work

environment, emotional labor and ego-resilience on nursing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11(4), 267-276. <http://dx.doi.org/10.21097/ksw.2016.11.11.4.267>

- [24] S. H. Park & M. J. Park. (2018).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Nursing Work Environment on Nursing Work Performance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4), 175-184. <https://doi.org/10.14400/JDC.2018.16.4.175>
- [25] W. Nafei. (2015). Meta-Analysis of the Impa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Quality of Work Lif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 Study on Sadat City Univer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6(2), 42.
- [26] T. Sun, X. W. Zhao, L. B. Yang & L. H. Fan. (2012). The impa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job embeddedness and job performance among nurses: a structural equation approac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8(1), 69-79. doi: 10.1111/j.1365-2648.2011.05715.x
- [27] J. Y. Choi, I. Y. Hwang & Y. M. Park. (2012). Relationship among sense of humor, self-esteem, and performance in Nurs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1(1), 10-17. <http://dx.doi.org/10.5807/kjohn.2012.21.1.10>
- [28] S. Min, Y. Jung & H. Kim. (2004). Correlation between a sense of humor in nurses and their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17(4), 1427-1444.

이 경 숙(Kyoung-Sook Lee)

[장학원]



- 1992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3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7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울산대학교 간호

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스트레스
- E-Mail : thinovation@naver.com

장 인 실(In-Sil Jang)

[장학원]



- 2003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8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울산대학교 간호

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심혈관질환
- E-Mail : isjang@ulsan.ac.kr